전남도, 추경 5300억 증액…"민생경제 살리기"

골목상권·석유화학 지원에 초점
전남형 기본소득·만원주택 추진
여수섬박람회 등 문화관광 주력
"산업·민생위기 해소 마중물 역할"

전남도가 5300억 원이 증액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수립해 전남도의회에 제출하는 등 민생경제 위기 해소를 위한 선제 대응에 나섰다.

14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도는 2025년도 본예산인 12조5436억 원보다 5373억 원, 4.3% 증액한 13조809억 원을 편성했다. 일반회계는 9조9622억 원 대비 4310억 원 증가한 10조332억 원, 특별회계는 1조1386억 원 대비 306억 원 증가한 1조1692억 원이다. 기금은 1조4428억 원 대비 757억 원 늘어난 1조5185억 원이 편성됐다.

이번 추경의 주요 내용은 골목상권 회복, 건설경기 부양, 석유화학·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등으로 지역·민생경제 살리기에 초점이 맞춰졌다.

전남도는 민생예산에 총 235억 원을 편성했으며 △청년창업사관학교 운영(10억 원) △소상공인 보증수수료 지원(2억 원) △석유화학 고용안정 (1억 원) △철강기업 경쟁력 강화 (5억 원) △대미 수출 피해기업 지원(1억 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도민행복시책은 △전남형 기본소득(128억 원) △전남형 만원주택(90억 원) △전남 청년비전센터 건립 (75억 원) 등 총 282억 원이다.

농수축산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FTA 축산·수산 피해보전 (135억 원) △방조제 개보수 (103억 원) △배수개선 사업 (359억 원) 등 917억 원이 투입된다.

문화·관광 분야에는 225억 원을 편성해 △남도의병 역사박물관 조성 (80억 원) △여수세계 섬박람회 (29억 원) △한승원 문학터 복원 (8억 원) 등을, 건설경기 활성화에는 △지방하천 정비(111억 원) △지방도 정비(180억 원) 등에 총 1102억 원을 투자해 사업을 추진한다.

전남도 관계자는 "산업과 민생경제 위기가 매우 심각한 상황에서 정부가 나서지 않으니 전남도에서 먼저 움직이는 것"이라며 "12·3 불법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미국의 상호관세 등 대내외적 불확실성으로 인한 민생경제 위기 해소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와 더불어 정부의 조속한 추경 추진 등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한 만큼 정부 추진 상황에 맞춰 전남도 현안 사업 건의활동 등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남도 추경안에 따라 전남도의회는 15일부터 심의를 시행할 예정이다.

오지현 기자 jihyun.oh@jnilbo.com

전남 청년 정책 카카오 알림톡 서비스

전남중기일자리경제진흥원

전남청년센터가 전남도의 청년 정책을 더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청년들을 대상으로 '청년 정책 소식'을 카카오 알림톡을 통해 격주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전남청년센터가 전남도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에 의해 추진된다.

전남청년센터는 청년 정책 안내 및 홍보, 지역 청년 단체 및 시설과의 협력체계 구축, 지역 특화 청년사업의 관리 및 운영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번 알림톡 서비스는 청년들이 전남도의 다양한 청년 정책과 프로그램에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으로,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유용한 정보와 지원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한편 청년 정책 소식 알림톡 서비스는 카카오 채널에서 '전라남도청년센터'를 친구 추가하면 격주로 제공된다. 오지현 기자

광주시, 위기임산부 24시간 원스톱 상담 '1308' 운영

병원동행 등 맞춤서비스 제공

광주시는 위기임산부를 돕기 위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엔젤하우스'를 지역 상담기관으로 지정, 24시간 원스톱 상담체계를 운영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원스톱 상담체계는 베이비박스 영아유기 등 유사 사건을 예방하고 임산부의 안전한 출산과 아동의 건강한 양육을 보장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추진하는 선제적 예방시스템이다.

엔젤하우스는 임신 중 또는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대상으로 연령, 혼인여부, 소득에 관계없이 임신·출산·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임산부를 위해 24시간 상담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24시간 상담전화 '1308'을 통해 상담은 물론 출산·양육 정보 제공, 법률·의료·심리 서비스 등을 포괄적으로 지원한다.

또 카카오톡 채널 '위기임산부 상담 1308' 등 다양한 형태로 비밀상담도 가능하다. 병원 동행, 분만 지원, 양육물품 지원 등 위기상황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위기임산부가 원할 경우 엔젤하우스에 입소해 원가정 양육·보호출산을 결정할 수 있으며 산전·산후 케어, 양육 지원, 일상생활 지원, 진로 자립 프로그램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단계적 상담 후 보호출산을 신청한 임산부는 신원을 밝히지 않고 가명으로 안전하게 출산 가능하다.

엔젤하우스는 지난해 7월 개소한 이후 올해 2월까지 총 30명의 위기임산부에게 상담과 함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했다.

정상아 기자

전남도, 영농철 농기계 종합보험료 지원

자부담 80%…대상 기계 확대

전남도가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농업인의 안전한 농기계 사용을 지원하고 예기치 않은 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농기계 종합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농기계 종합보험료 가입 비용의 80% 지원을 통해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각종 농기계 안전사고로부터 농업인의 생명과 재산상 손해를 보장한다.

농기계 종합보험은 농기계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는 것으로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적재농산물 피해를 지원한다.

가입대상 농기계는 지난해 12기종에서 농업용 고소작업차와 농업용 리프트가 추가된 14기종이다.

특히 올해부터 블랙박스 장착 트랙터에 보험료 3% 할인, 트랙터와 경운기 동시보험 가입 시 보험료 3% 할인 등이 적용된다.

'대물배상책임'이 최대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적재농산물위험'이 최대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보장범위가 확대되는 등 다양한 제도가 개선돼 농업인의 부담이 더욱 줄었다.

지난해 농기계 종합보험에 1만7256 농가가 3만6220대의 농기계를 가입해 총 2842건, 95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예상치 못한 농기계 사고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을 바라는 농가는 가까운 지역농협에 방문해 가입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인근 시군, 농협에 하면 된다.

오지현 기자

김영록 도지사 세월호 참사 11주기 희생자 추모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14일 세월호 참사 11주기를 이틀 앞두고 진도항을 찾아 헌화하며 희생자의 넋을 기리고 있다. 전남도 제공

전남도, 370억 투입 교통안전시설 대폭 강화

스마트 인프라 확충 등 4개 분야
안전 강화·사망자 감소 역량 집중

전남도가 교통사고 사망자 감축을 위해 올해 370억 원을 투입해 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주요 사업은 교통약자(노인·어린이), 보행자, 운전자를 위한 안전시설 확충과 첨단 스마트 교통안전 인프라 구축 등 4개 분야 26개 사업이다. 특히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비중이 높은 노인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에 중점을 두고, 관련 안전시설을 집중 확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노인, 어린이 등 교통약자 보호를 위한 안전시설 확충에 1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노인보호구역 19개소, 어린이 보호구역 103개소에 안전시설을 확충한다. 고령 운전자의 사고방지를 위한 차선이탈 방지 장치 692대도 지원한다.

고령 보행자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119억 원을 투입해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14개소, 마을진입로 과속 방지시설 54개소, 활주로형 횡단보도 102개소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스마트 횡단보도 10개소, 보행신호 자동연장시스템 13개소 등 최첨단 안전시설에도 15억 원을 지원한다. 스마트 횡단보도는 바닥형 보행신호등과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를 설치해 보행자의 주의를 환기시켜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보행신호 자동연장시스템은 보행시간 내에 도로를 횡단하지 못한 보행자(교통약자 등)를 인공지능으로 인식해 보행시간을 연장해 줌으로써 더욱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이 가능하다.

또한 운전자의 교통안전 환경 개선을 위해 136억 원을 투입,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 15개소를 비롯해 회전교차로 10개소, 과속단속카메라 81개소, 시야확보 표지판 230개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강영구 전남도 도민안전실장은 "선제적·과학적인 교통안전시설 확충을 통해 도민 모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오지현 기자

'구제역 청정지역' 광주시, 백신항체 검사 실시

내달까지 소·돼지 농장 100곳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지역 농장과 도축장 출하 소·돼지를 대상으로 '구제역 백신 항체 검사'를 오는 5월31일까지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올해 상반기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 이후 백신의 실효성과 야외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정기 점검이다.

검사 대상은 지역 20개 농장과 도축장 출하 80개 농장의 소·돼지 530마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항체검사 이력이 없는 농장, 항체 양성률이 80% 미만이었던 농장, 자가접종 농장을 우선 대상으로 한다.

검사 결과, 항체 양성률이 기준(소 80%, 돼지 비육돈 30%, 돼지 번식돈 60%)에 미달할 경우 해당 농장에서 16두를 추가 채혈해 재검사를 실시한다. 기준 미달이 확인되면 관할 자치구에 통보할 방침이다.

또 야외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항체 검사에서 양성 개체가 확인되면 구제역 의심축으로 판단해 이동 제한, 확대 검사 등 긴급 방역조치가 이뤄진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월 전남 영암과 무안 등지의 한우농장에서 발생한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의 소·염소를 대상으로 일제 접종을 조기에 완료했으며, 광주시도 지난달 21일까지 접종을 마쳤다.

아울러 구제역 위기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하고, 방역대책상황실을 지속 운영하고 있다.

정상아 기자